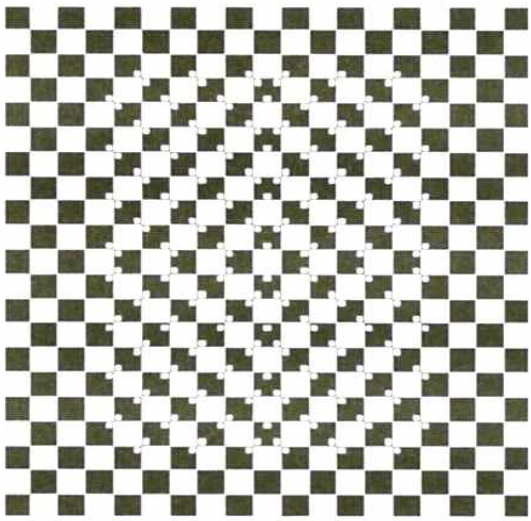
2017학년도 논술기출문제

[인문/상경계 오전 문제1]

*** 다음 내용을 보고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가>

아래 그림은 '왜곡된 체스판'이라고 불리는 착시 그림의 예이다. 작은 정사각형들로 구성된 체스판인데, 가운데로 갈수록 직선이 곡선으로 변하고 정사각형도 볼록 튀어나와 보인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림엔 곡선과 휘어짐이 없다. 작은 사각형들은 모두 직선이다. 검은색과 하얀색 정사각형들이 서로 교차되는 가운데 중앙 부분의 검은 정사각형들 안에 존재하는 더 작은 하얀 정사각형들이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는 각각의 부분들에 적용되었던 형태가 전체로 가면서 왜곡되는 데 있다. 이런 면에서 이 그림은 '구성의 오류'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영국의 어느 마을 한가운데에 누구나 양들을 끌고 와서 먹일 수 있는 무성한 목초지가 있었다. 이 목초지는 공유지였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 제한 없이 먹이를 먹일 수 있었다. 하지만 풀이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먹이는 양의 수를 제한해야만 했다.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목초지를 관리하고 목초지에 방목된 양의 수를 제한해 보기도 하였지만 별 성과 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결국 모든 농부들은 목초지가 망가지기 전에 자기 양떼를 먹이려 했고, 삽시간에 양들이 모여들어 목초지는 황폐화 되었다.

개개의 농부 입장에서 양 한 마리를 늘리게 되면 양 한 마리의 가격만큼 이익이 증가한다. 물론 양 한 마리가 먹는 만큼 풀이 줄어들게 되지만, 이로 인해 각 농부에게 돌아오는 손해는 미미하다. 따라서 개개의 농부 입장에서는 양을 한 마리 더 키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너도나도 양을 한 마리씩 더 키우다 보면 결국 목초지는 황폐화되어 모든 농부가 더 이상 양을 키울 수 없게 된다. 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며, 개별 농부 이익의 합이 전체 이익과는 다를 수 있다는 '구성의 오류'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아래 표의 데이터는 A사와 B사가 생산하는 위염약의 치료효과를 실험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표에 따르면 A사의 위염약은 경증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40명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증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25명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사의 위염약이 총 100명의 환자 중 65명에게 효과를 나타내 65.0%의 완치율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경증		중증		합계	
	실험 대상 수	효과 수	실험 대상 수	효과 수	실험 대상 수	효과 수
A사	50	40	50	25	100	65
완치율	(80.0%)		(50.0%)		(65.0%)	
B사	120	90	10	4	130	94
완치율	(75.0%)		(40.0%)		(72.3%)	

[문제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참고하여 '구성의 오류'를 정의하고, 제시문 <다>의 표에 나타난 '구성의 오류'의 내용을 쓰고, 그 원인을 밝히시오. (500자, 40점)

1. 출제 의도

- “문제 1을 출제한 의도는 주어진 지문들을 통해 ‘구성의 오류’ 개념을 파악하는 능력과, 주어진 사례에서(‘의’ 삭제) ‘구성의 오류’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
- 제시문 <다>에 주어진 표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과 함께 제시문의 논리적 오류(구성의 오류)와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비판적 역량을 검증하고자 함

2. 예시 답안

구성의 오류란 각 부분에 적용되었던 논리가 부분의 합인 전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제시문 <다>의 위염약의 치료 효과 실험 결과에서 경증 환자, 중증 환자 각각의 완치율 모두 A사가 B사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증, 중증 환자 모두를 고려한 전체 완치율은 B사가 높아지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는 경증 환자, 중증 환자 각각에 대한 완치율인 부분의 결과와 경증, 중증 환자 전체의 완치율인 전체의 결과가 서로 상반되는 구성의 오류라 볼 수 있다. 위염약 실험에서 구성의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각 사의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의 실험 대상 수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전체 평균을 구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경증 환자 완치율이 중증 환자 완치율보다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B사는 중증 환자 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증 환자 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전체 완치율이 높아지게 되는 구성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다. [470자]

[인문/상경계 오전 문제2]

다음 내용을 보고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대신 줄을 세우거나 암표를 파는 행동은 잘못일까? '대리 줄서기가 도덕성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화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암표 매매 금지법에 반대하는데, 이러한 법은 성인이 서로 동의해서 내린 결정을 거스르므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주장은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똑같이 이익을 얻고, 그 결과 집단의 사회적 효용이 증가한다고 말한다. 돈을 지불한 사람과 돈을 받고 대리로 줄을 선 사람이 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양쪽이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대리 줄서기가 도덕성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주장을 펼칠 수 있을까? 그들은 대리 줄서기와 암표 판매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입장권을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돈을 받고 대신 줄 서는 사람이나 암표상이 입장권을 손에 넣었다면 그 뒤에 서 있던 사람, 즉 높은 가격을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극장 측이 연극을 열렬하게 관람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관람석을 채우고 공연이 주는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연극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입장권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입장권에 최고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공연에서 최대의 즐거움을 누릴 관객으로 극장을 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입장권 분배를 자유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최고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입장권을 파는 것이 공연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는 공리주의를 주장했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옳은 행위는 '공리'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이다. 그가 말하는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 일체를 가리킨다. 그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거쳐 자신이 주장하는 원칙에 도달한다. 우리는 모두 고통과 쾌락이라는 감정에 지배된다. 이 감정은 우리의 '통치 권자'다. 이는 모든 행위를 지배할뿐더러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결정한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그의 주권에 달렸다." 우리는 모두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공리주의 철학은 이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삶의 기초로 삼는다. 공리를 극대화한다는 원칙은 개인만이 아니라 입법자에게도 해당한다. 정부는 법과 정책을 만들 때,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동체란 무엇인가? 그에 따르면, 공동체란 '허구의 집단'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 따

라서 시민과 입법자들은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정책에서 얻는 이익을 모두 더한 뒤에 총비용을 뺀 결과가, 다른 정책보다 더 많은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공리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워낙 단호해서 그것을 반박할 그럴듯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그는 모든 도덕적 주장은 반드시 행복의 극대화를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롤스는 이렇게 추론한다. 우리가 집단의 삶을 지배할 원칙을 정하기 위해, 그러니까 사회계약을 작성하기 위해, 현재 모습 그대로 한 자리에 모였다고 가정하자. 어떤 원칙을 고를까? 이 작업은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원칙이 다를 테고, 그 원칙들은 각자의 이해관계, 도덕적, 종교적 신념, 사회적 지위를 반영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 어떤 사람은 인종, 민족, 종교에서 소수 집단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어쩌면 타협점을 찾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타협은 했을망정 다른 이들보다 더 우월한 교섭력을 지닌 사람들이 이미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타협점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사회계약을 공정한 합의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

한 가지 사고실험을 생각해보자. 원칙을 정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속할지 모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무지의 장막” 뒤에서,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일시적으로 나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한다고 상상하자. 나의 계층과 성별, 인종과 민족,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신념도 모른다. 남보다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내가 건강한지 허약한지, 고등교육을 받았는지 고등학교를 중퇴했는지, 든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문제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전혀 모른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야말로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선택하게 된다. 이처럼 협상에서 어느 누구도 우월한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합의한 원칙은 공정하다.

[문제2]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주장을 근거로 제시문 <가>의 ‘대리 줄서기가 도덕성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대리 줄서기가 도덕성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800자, 60점)

1. 출제 의도

- 문제2를 출제한 의도는 공리주의적 관점과 롤스의 《정의론》의 관점을 읽고 두 주장을 종합적으로 사고함으로써 '대리 줄서기'라는 도발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상반된 두 관점을 비교 평가하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 각자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지적 토대에 근거한 상반된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리 줄서기'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판단의 논리적 입점(入點)'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지를 평가하고, 깊이 있는 독해와 사고력을 측정하고 적확한 서술 능력을 파악하려는 것이 출제의 의도임

2. 예시 답안

제시문<나>를 보면, 공리주의자는 쾌락과 행복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막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장한다. 제시문<다>는 공정한 합의에 의한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을 전제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나>와 제시문<다>의 관점을 종합하면 개인의 자유나 사회적 효용이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조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전제에는 평등에 기반한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리 줄서기가 도덕성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주장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 존중이라는 면을 침해했고, 지나치게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춘 견해로서 공정한 합의에 바탕을 둔 사회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원초적으로 평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대리 줄서기가 도덕성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주장은 개인의 자유 존중과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수긍하면서 그 전제에 평등에 기반한 공정성의 원칙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나는 이와 같은 평가가 매우 타당하며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행복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깊이 있게 해석하고 평등에 기반한 공정성을 논의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줄서기는 사회적 합의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속되어 온 것이다. 사회적 합의의 전제는 일관성과 공정성 위에서 모두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리 줄서기는 일부 재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꼼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공정성이 전제되지 않는 사회적 합의가 모두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총 834자)